



[가격동향] 美, 유제품 등 식품 인플레이션 심화

- 지난 10월 유제품 소비자물가지수 1.8% 상승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Daily Dairy Report의 낙농분석가에 따르면,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5.6% 상승하고 식품에 대한 CPI도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물가지수가 50~60% 상승함에 따라 높은 생산비에 대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속에 유제품의 소매가격도 일반 식품대비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유제품 CPI는 전년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우유 가격은 8% 상승하며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월 FAO 식품가격지수도 전년동기대비 31.3%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dairyherd.com, 11월 15일자 >

[낙농경영]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낙농 협력 강화 추진

- 낙농센터 설립, 목장 자동화, 유가공 등 낙농산업 분야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주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원유생산자 협회(ABM) 및 이스라엘-우크라이나 협력 발전 협의회(CIS)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낙농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낙농센터 설립, 목장 자동화, 복합사료 수출입, 유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논의하고 오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1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